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

2017.1.2



1 기후기술 동향

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UNFCCC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24,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 확정 - 이로써 폴란드는 4번째로 COP 주재국으로서 활동할 예정 <p style="text-align: right;">(UNFCCC, 1/2)</p>
CTCN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기관 총 396개 ('17.12.19 현재)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회원기관 총 48개 ('17.12.19 현재) -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가입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E 총 158개 ('17.12.19 현재) - 동티모르 NDE(환경부) 선정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tional CCS Knowledge Center 웨비나 개최 - 일시: 2018. 2.14 (수) - 주요내용: 캐나다 SaskPower에서 운영 중인 대규모 탄소포집 및 저장(CCS) 시설인 Boundary Dam 3 CCS의 설치 및 운영에서 얻은 경험 및 지식공유 <p style="text-align: right;">(CTCN, 11/24)</p>

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국내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부, 부탄 팀푸 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 -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기후기술현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 중인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들은 기후기술 협력 프로

		<p>젝트를 개도국 현지에서 직접 발굴하고 국내 기후기술이 개도국 현지 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실증 등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기후기술현지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탄 팀푸시의 2개 버스 노선에 버스정보시스템 실증시설을 구축했으며, 향후 국내외 기후자원 과 연계해 부탄 팀푸시 전역에 버스정보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할 예정 <p style="text-align: right;">(경향신문, 12/26)</p>
	기재부	<p>○ 기재부, 국제금융기구 관련 정보 한 곳에 모아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 국제금융기구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서비스를 오는 3일 오전 10시 부터 시작할 예정 - 특히, 기구 자체 조달사업, 국제기구와 EDCF의 협조융자 사업, 한국 신 탁기금 사업, 국제기구와 KSP 공동컨설팅 사업 등 각 사업유형별 조달 사업절차를 안내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 사업참여에 관심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조달정보 접근성을 제고 <p style="text-align: right;">(피디언, 1/2)</p>
	KEITI	<p>○ KEITI, 세계은행과 '환경 분야 온라인 교육 자료 공동 개발과 활용' 계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계은행과 10만 달러(1억 1000 여만원)규모의 계약을 체결* - 기술원은 수질과 대기질 분야 영문 교육 자료를 세계은행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오픈러닝캠퍼스(OLC)'에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과목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 형식으로 개설한다고 밝힘 - 기술원은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대상 기 술자문 등을 위한 환경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 원할 계획 <p>* 지난해 9월 양 기관은 개도국 환경 분야 관계자 역량 강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과 분석, 투자자원 설계와 환경 유망국 공동 사업 발굴 등 3개 분야에 협력하기로 합의</p> <p style="text-align: right;">(이뉴스투데이, 12/19)</p>

3. 기후기술정책

구분	내용
<p>국내</p> <p>정책 일반</p>	<p>○ 전문가, '재생에너지 3020'에 수소정책방향성 안보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토가 좁고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 과연 최적화된 계획인지에 대해 의문 제시 -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믹스', '에너지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되어 있어 우려를 표현 - 송경열 맥킨지 에너지센터 디렉터는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모호하다'며 보다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 제시가 선행되어야 민간 투자가 활기를 띌 수 있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에너지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힘 <p style="text-align: right;">(매일경제, 12/19)</p>
	<p>○ 환경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가 총괄하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이 환경부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 -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 <p style="text-align: right;">(뉴시스, 1/1)</p>
	<p>○ 국내연구진, 온실가스 안 줄이면 2050년 지구 1/3 건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연구진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2050년 지구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증가해 지구의 건조화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힘 - 본 연구진은 자체기술을 통해 IPCC 5차 보고서에 제시된 지구온난화 시나리오 RCP 8.5를 기반으로 사막화가 극심해지는 시기, 사막화 심각 지역 및 피해규모 등을 예측 -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사막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결과가 네이처지 온라인 판에 게재됨 <p><small>*RCP 8.5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대표농도경로):IPCC 5차보고서에 명시된 기후변화시나리오 중 하나로서, 온실가스농도가 940ppm 수준으로 별다른 기후변화감축노력이 이행되지 않고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배출량이 지속될 경우를 의미함</small></p> <p style="text-align: right;">(녹색경제, 1/2)</p>

		<p>○ 국내대기업, 스스로를 기후변화대응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ET가 1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기후변화 인식과 대응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업이 생각하는 중요한 주체는 국가(69.4%)였으며, 이어 기업(18.2%), 개인(6.0%), 지역사회(5.8%) 순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 서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대기업의 경우 기업을 기후 변화 대응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는 비중이 5.6%에 그쳤다. 이는 중소기업(18%), 중견기업(21.9%)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 - 보고서는 "기업이 스스로를 기후 변화 대응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면서 "이로 인해 정책 결정시 기업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 <p style="text-align: right;">(이투데이, 1/2)</p>
		<p>○ 기술협력사업 성과제고 위해, 개도국의 참여도 높여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22일 열린 ‘제 16회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은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기술협력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됨 - 김종선 KREI 박사는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개도국의 사업 참여도 및 책무성 제고, ODA 사업의 전문성 제고,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를 강조 - 한 예로 FAO와 호주의 사례를 들며, 사업 기획단계에서 개도국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협정서 체결 시 이를 명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진행과정과 완료단계에서 개도국의 역할분담 이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제시 <p style="text-align: right;">(전업농신문, 12/25)</p>
		<p>○ 농업기술 협력을 통한 개도국 식량난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진청은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를 통해 대륙별 농업현안 해결과 개도국의 농업기술 역량강화를 이끌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농업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협력 실현을 목표로 해당국과의 양자간 기술협력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과 다자간 기술협력인 대륙별 농식품기술개발협의체 등을 통해 개도국의 농업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중 - 농진청 기술협력국장은 “글로벌 농업기술협력이 국격 제고 및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며 “2018년에는 품종개발, 전문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대륙별 성과제고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p style="text-align: right;">(한국농어민신문, 12/28)</p>

국외	일반	<p>○ 라니냐로 인한 세계농산물 가격 급등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스트리트저널은 네덜란드 라보은행*을 인용해 2018년 올해 라니냐** 발생 확률은 70%이상으로 세계 농산물 주산지인 미국 및 남미지역의 피해가 클 경우 콩, 옥수수 등 주요곡물가격이 50%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p><small>*라보은행: 농산물과 농업 관련 투자에 특화된 은행 **라니냐(La Nina): 동태평양 적도부근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서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 동남아와 호주에 홍수가 발생하고, 페루와 칠레지역에는 가뭄을 동반하기도 함. 엘니뇨와 반대되는 현상</small></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경제, 1/2)</p>
	가나	<p>○ 가나기후혁신센터(GCIC), 기후기술보고서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기술 및 적정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소득창출 및 기후변화대응을 하기 위해 설립된 GCIC에서 ‘가나 청정기술 시장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자원관리,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폐자원관리 부문에 관한 기술을 소개 - 가나 환경부차관은 향후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기술에 대해 상담받고,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p style="text-align: right;">(Modern Ghana, 12/16)</p>
	미국	<p>○ 마이크로소프트, ‘지구환경 AI 프로젝트’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사장은 지난달 11일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2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구환경 AI 프로젝트(AI for Earth)’에 향후 5년간 5천만 달러(543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을 활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에는 543억 원 상당의 클라우드 서비스, AI 툴 및 플랫폼, 기술 교육 세션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 - 특히 물, 농업, 생물 다양성 및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환경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AI 기술,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점차 심각해지는 다양한 환경 오염을 AI 기술로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더욱 많은 사람과 단체가 AI 기술을 통해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구상 <p style="text-align: right;">(미디어SR, 12/27)</p>

2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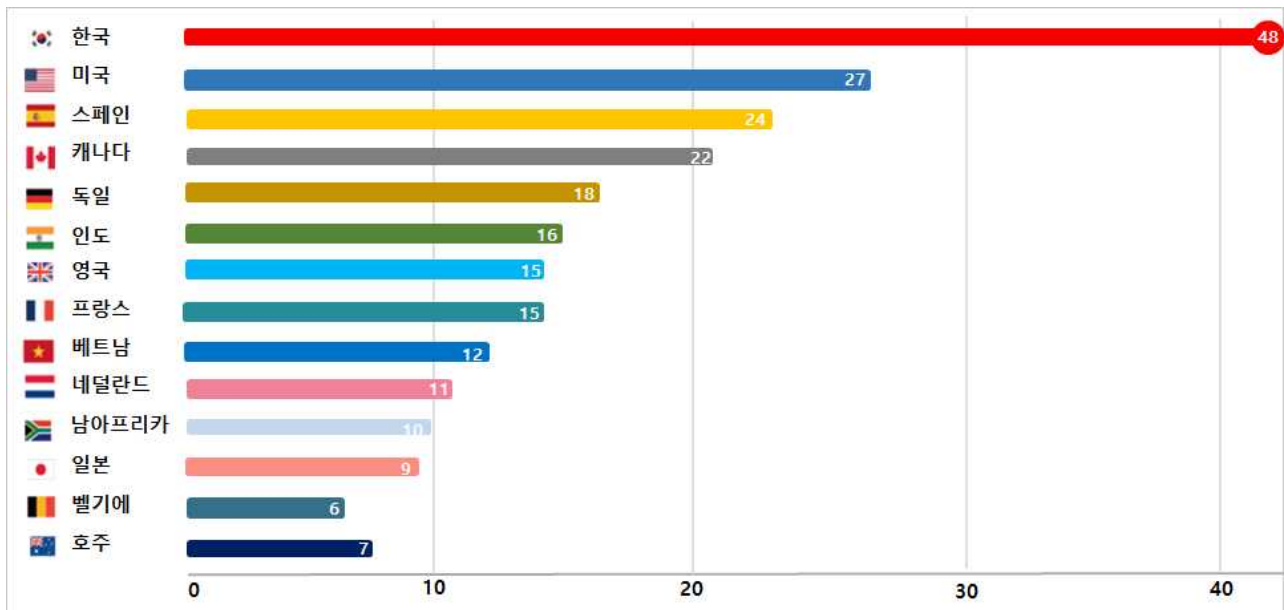
□ 파리협정 비준 현황 (2018.1.2. 현재)

- 197개 당사국 중 172개국 비준

UNFCCC 홈페이지 (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

□ CTCN 가입기관 현황 (2018.1.2.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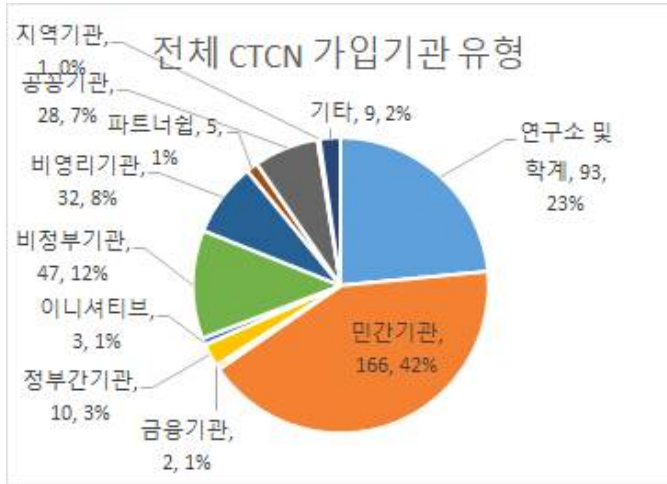
- 총 396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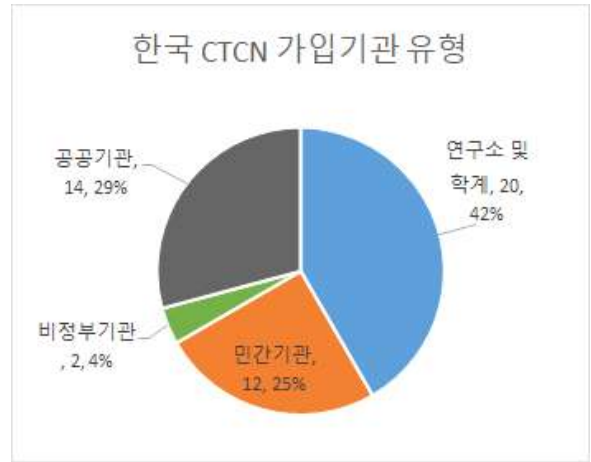
가입기관의 업무유형 현황



□ CTCN 가입기관 유형 (2018.1.2. 현재)



<CTCN 전체 396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49개 가입기관 유형>

- 전체 396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문이 전체 166건으로 42.9%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93건(23%),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47건(12%), 32건(8%) 순으로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49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20건(42%)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4건(29%)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CTCN 가입기관 (2018.1.2. 현재)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 (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파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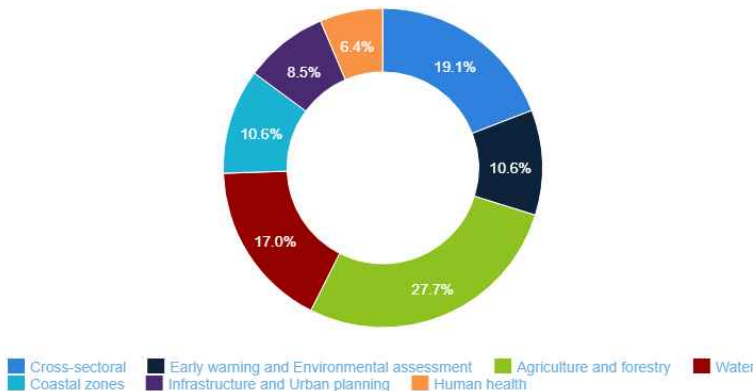
40	KPMG Korea	N0285
4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	N0307
42	LS 산전(LSIS)	N0320
43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N0323
44	(주)에스엘글로벌(SLG Co.,Ltd.)	N0356
45	(주)해강기술	N0382
46	APEC 기후센터	N0383
47	평화엔지니어링	N0407
48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N0412

□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17.12.19 현재)

- 제출된 TA : 196개
- Active TA : 108개 (감축관련 TA-44.7%, 적응관련 TA-29.3%)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